

## □ 2018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 3차 공모 문학분야 심의 총평

### 문학분야

- 회의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오후 2시~3시 30분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1층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 순) : 고봉준, 박찬순, 전성태

#### 1.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3차

이번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사업에는 3개 프로그램에 모두 4명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에 참가할 파견작가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회의를 진행하였다.

올해는 신규 파견기관으로 프랑스 파리국립동양학대학교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교가 신설되어 심의에 신중을 기하였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사업은 참여 작가에게는 더없이 좋은 레지던스 과정이 되겠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나름대로 우리문학을 대표하는 공공성도 확보해 장차 이 국제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파리국립동양대학교의 경우, 신청자의 문학적 경력에 대한 판단과 신설된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IWP)과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교는 신청자의 사업계획 및 작가역량 등을 높이 평가하여 각각 1명씩 선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 파견작가를 선정하는 데 심사위원들은 심의기준을 세분화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40%),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30%), 기여도와 파급효과(30%)로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채점하도록 하고 그 점수를 합산하였다. 2명이 신청한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교의 경우는 다득점자 순위로 지원자를 정하였다. 각각 1명씩 신청한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와 프랑스 파리국립동양대학교는 심의위원들의 개별 점수를 채점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가능한 점수를 득한 지원자를 선정하였다.

이번 레지던스지원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비해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 내년에는 동 사업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역량 있는 작가들의 더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

## □ 2018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 3차 공모 시각예술분야 심의 총평

### 시각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18년 7월 19일 (목) 오전 10시~12: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1층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 순) : 배명지, 양지연

#### 1.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3차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사업에는 총 10명의 작가가 지원했다. 남극 세종 기지와 예술 위원회가 협약을 맺어 시각 예술가를 파견하는 올해 사업은 남극의 다양한 문맥을 담아내기 위해 영상을 주된 매체로 활용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의위원들은 남극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확실한 참가 동기와 뚜렷한 예술 활동 목표, 참가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향후 기대되는 예술작품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예술계 기여도 등을 다각도로 꼼꼼히 검토하여 본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최종 2인을 선정하였다. 개인 예술가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극지연구소 레지던스 참가를 통해 창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2.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3차

예술인의 해외 창작 레지던스(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기획형레지던스 사업과 달리 예술인 스스로 참가 지역, 프로그램, 기간 등을 선정하고 신청하여 초청장을 득하는 것이 자율형 지원의 기본 전제인 만큼, 작가의 경력/작업에서 레지던스 참여의 목적의식과 계획이 충실하고 타당한지가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다만 같은 이유에서 초청 기관의 전문성과 공신력에 있어서는 편차가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레지던스가 확장일로에 있는 만큼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의 전문성, 지원의 합목적성을 판단하는 것이 이전만큼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레지던스의 전문성, 지역/프로그램과 작가/작업 계획과의 적합성, 계획의 충실성 및 예술계 파급효과 등을 심사의 우선순위에 두었다. 또한 신청 사업 총 13건의 행정적 요건들 - 예산 사용 계획, 지원 조건 충족 여부 등 - 을 면밀히 살펴 지원사업과 지원규모를 심사하였다. 오늘날 레지던스는 정해진 기간 내의 가시적인 결과물 산출 이상으로 작가의 견문 확장, 새로운 환경에서의 재충전 기회,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비가시적 과정을 통해 작가 개인과 예술계 전반의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자율형 해외 레지던스 참가지원 사업을 통해 시각예술인의 경력개발과 역량 강화, 예술계의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책임의식과 도전, 관심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

## □ 2018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 3차 공모 공연예술분야 심의 총평

### 공연예술분야

- 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오후 2시 30분~6시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1층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 순) : 백승무, 이정하, 조원행, 최현주, 허용호, 홍혜전

2018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3차 공모에는 공연예술 4개 분야에 총 29건의 지원자가 신청했으며, 그 중 후보선정건 포함하여 총 23건이 선정되었다. 구체적 지원현황을 공개하자면, 1.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에는 연극 4건, 무용 1건, 2.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에는 연극 2건, 무용 3건, 음악 1건, 전통예술 3건, 3. ARKO-PAMS협력지원에는 무용 2건, 4. 공연예술해외진출프로모션키트지원에는 연극 6건, 무용 2건, 전통예술 5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공연예술분야 장르를 통합하여 심의를 진행했는데, 먼저 해당분야 심의위원들의 객관적 설명을 청취하고 지원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 지원자 면면에 대한 심도 있는 자유토론 후에 배점평가를 시행했으며, 이 배점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조정절차를 거쳐서 최종지원금을 결정했다. 단, 금번 3차 공모에는 지원자가 적어서 높은 선정률을 기록했는데, 많은 사람을 지원하는 건 심위위원으로서 기쁜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로 인한 심의점수의 하향화가 타 차수 지원자들과의 상대적 차별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좀 더 공평하고 객관적이면서도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안이 필요한 대목이었다. 또한 차수별 일정과 규모를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산정하여 일정한 경쟁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모사업별 심의기준과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 1.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3차

해외 우수창작단체에 예술가를 파견하여 창조성과 영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본 사업에는 연극 4건, 무용 1건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40%),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30%), 기여도와 파급효과(30%)을 중심으로 지원자들의 목표의식, 성과기대치, 잠재력 등을 따졌다. 연극의 경우, 네 지원자 모두 예술적 집념과 활동 강도에 있어서 훌륭한 평가를 받아서 레지던스 주관처에서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후보자로 올렸으며, 무용 지원자는 지원내용의 적합성과 추진력이 뛰어나고 기대성과도 모자람이 없어서 선정자로 낙점하였다.

#### 2.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3차

이 사업은 지원자의 자발적 활동의지와 실행의 구체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만

큼, 지원서류 속에 내포된 예술가의 목적의식과 활동 구상, 실천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연극의 경우, 2건이 활동의 지속성과 국제적 네트워크구축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한국예술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무용은 2건이 활동의 구체성과 도전의식, 목표 실행력에 있어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음악분야 1건은 기존활동과의 연계성과 창작작업의 적합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전통예술에서는 1건이 창작적 가능성과 주제의식, 독창성과 개성에서 호평을 받았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지원자들의 경우, 지난 1차~2차 지원신청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의 구체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여 평가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업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공지된 심의기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참고로 자율형 사업은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20%), 사업내용의 예술성(3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20%)의 심의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 3. ARKO-PAMS 협력지원-3차

팸스초이스(PAMS Choice)에 기선정된 작품의 해외진출을 독려하여 우리 공연예술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본 사업은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30%), 사업내용의 예술성(30%),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20%),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20%)를 심의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배점비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과 사업의 예술적 가치 및 독창성에 대한 고려를 우선했다. 무용 2건의 선정 작품은 예술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외 파트너의 초청조건도 무난하며, 해외공연의 기대성과 또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원금 결정에 있어서 부적합 항목으로 인해 지원 신청 총액의 일부가 삭감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다. 본 사업의 지원항목은 항공료, 화물운송료, 홍보물 제작비 일부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공연예술해외진출프로모션키트지원-3차

본 사업은 팸스초이스에 기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해외초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모션키트(책자, 영상) 제작지원 프로그램인데, 심의기준이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30%), 사업내용의 우수성(30%),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20%),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20%)라서 지원단체의 해외공연 역량과 사업계획의 구체성, 치밀성, 완성키트의 활용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다. 연극분야는 단체의 공연 역량과 레퍼토리의 다양성과 예술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여 6건 중 5건을 지원결정했고, 2건 지원한 무용분야는 활동성과와 공연 역량 및 해외진출을 통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한 단체에 지원을 결정했으며, 전통예술은 창의성과 독창성이 우수하고 전통의 가치와 예술성을 드높일 수 있는 사업에 높은 점수를 주어, 5건 중 4건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해외진출과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점점 고조되는 이 시점에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사업은 국내창작의 독려와 한류문화의 확산 및 보편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예술정신의 지구적 공유라는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한 사업이다. 보편성과 지역성, 언어와 국적, 전통과 현대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많은 창작자들이 이 사업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하길 간구하는 바이다.

심의위원 일동